

농식품부 장관, 흙살림 농장 방문

토종논 점검 및 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 개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7일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흙살림 토종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산물 개방 확대와 가짜 친환경 농산물에 따른 소비자 불신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의 방지를 위해 친환경 인증기관과 친환경 농업 실천현장을 점검하고 친환경농업발전 간담회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 흙살림 토종연구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연구와 더불어 토종종자를 수집, 보관, 육종하고 있는 곳이다. 이 장관은 토종연구소 방문에서 토종벼 80여 종이 자라고 있는 토종생태논을 찾았다. 종의 다양성 보존이라는 유기농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는 현장

이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유기종자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의 미를 찾을 수 있었다. 토종생태논에서는 다양한 토종 벼 품종 뿐만 아니라 들벼에서 새뱅이, 토종미꾸라지, 벼들치 등등 수 증생태계도 온전히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토종종자를 토대로 한 유기종자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고, 이 장관은 "농촌진흥청의 연구 수행과정을 살펴보고 민간과의 협동, 지원을 검토해보겠다"는 대답을 건넸다. 친환경농업 실천 현장으로서의 토종연구소 방문이 끝난 후에는 임각수 괴산군수, 농식품부 관계자, 충북도 관계자, 친환경



10월 17일 흙살림 토종연구소를 방문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토종생태논을 둘러보고 있다.

경농업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해 친환경 농업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8·9면>

이 장관은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와 가치부여를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등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아시아 유기농업 대회' 외국인 참가자들이 흙살림 토종연구소에 방문했다.

'아시아 유기농업 대회' 참가자 현장 투어

토종연구소에 큰 관심

"최소 반년은 흙살림 토종연구소에 머물면서 종자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싶다." UN 선정 2014 '세계 가족농의 해'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 관련 유관 기관·단체 및 공무원, 선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4회 아시아 유기농업 대회'가 지난 10월 3~4일 이

틀간 괴산군에서 개최됐다.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던 대회 첫째 날인 3일에 이어 둘째날인 4일엔 외국인 참가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가 이루어졌다. 농업회사법인 괴산잡곡농산과 괴산한지박물관, 흙살림 토종연구소에 방문했다. 특히 흙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논과 밭에 가꾸어진 한국 토종 벼 80여 종류와 잡곡 70

여 종류가 한데 어울려 자태를 뽐내고 있어 외국인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왕우렁이의 월동문제와 보라색 잎을 가진 '자도'라는 벼의 원산지 등에 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인도에서 자국의 토종 종자를 교환하며 보급하고 있는 데발 델 대표는 토종연구소에 남아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큰 애착을 보였다.

흙살림 도서 할인판매

미국의 유기농업을 꽃피운 로데일의 역사를 우리나라 유기농업박사 1호인 최병철 박사가 공들여 번역했습니다. 농업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근원은 흙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흙살림 회원분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Pay Dirt (생명농법 원리) | 농업성전 | 흙과 건강
각 권 원상가 20,000원 → 13,000원 (배송비 포함)
입금처 농협 323-01-059315 예금주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흙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판매중

흙살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흙살림 유기농업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기농업총서를 통해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세요.

농사짓는 즐거움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참농부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 한방영양학 개론
유기재배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 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흙살림 회원은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사무국 도서 담당 043-833-5004

종 다양성은 농장의 복원력에 도움

IFOAM 실행지침 중 생물 다양성

얼마전 유기농업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유기물이 많아지면 지렁이가 늘어나고 그러면 두더지가 늘어난다. 그래서 토양에 유기물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두더지를 박멸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병균과 해충을 박멸하는 병해충 자재들에 대한 요구도 높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몇몇 자재는 합성농약과 비등한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IFOAM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의 'B. 생태적 차원 : 공통의 자원들은 지속가능하게 사용된다.'의 3번째 항목은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면상 실행사례는 제외했다.

3. 생물 다양성 가치와 가이드라인

● 농업은 자연 환경에서 시작되고 기능한다. 우리는 식량, 의약품 및 기타 편익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품종과 경지 은행으로서 자연의 다양한 기반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연은 농장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많은 유용한 생물의 집이며, 영감과 지식의 지속적인 원천이다. 자연환경의 복원, 창조성 및 파괴는 인간의 능력과 통제를 벗어난다. 번성하는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가 그것을 파괴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관심 안에 있다.

● 빨리 작용하는 무기질 비료(생물학적 평형을 무너뜨린다)와 마찬가지로 합성 제초제, 살충제 및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기농업의 더 높은 다양성 특성에 대한 주요 이유지만, 이들 요인들 단독으로는 높은 수준의 기능적인 야생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몇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이해하고 고려한다:

- 발견된 생태 유형의 다양성

- 존재하는 종들의 수
- 주어진 종들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
- 땅 위와 땅속에서 발견된 다양성
- 미생물과 보다 큰 생물에서 발견된 다양성

● 좋은 생물 다양성 관리는 먹이사슬, 공생, 생물학적 해충 방제 등 소위 기능적 생물 다양성을 포함하며 다양한 시스템의 구성성분들 사이에 유용한 상호작용들의 수와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양성이 높은 농업 생태계의 유지와 개선은 현대 기후변화/본포, 예를 들어 온난화 트렌드, 강한 폭풍, 그리고 특이 건조하거나 습한 계절의 현상에 대한 농장의 복원력에 기여한다.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햇빛과 대기의 탄소를 획득하고 수분을 보존하는 적응된 종들의 높은 다양성을 포함한다. 동물들은 그들의 땅을 축적하고, 잡초를 통제하며 인간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사료를 이용함으로써 생산 시스템을 종합적인 기능에 공헌한다. 방목하는 종들과 가금(닭, 오리, 거위 등)의 결합은 다양성

을 늘리고 화석연료로 가동되는 모터 및 경운기와 같은 장비를 대체한다.

● 농장들이 장기간에 걸쳐 평형과 복원을 성취하게 돕기 위해 우리는 종의 다양성의 관리와 회복을 격려한다. 한계 혹은 비생산적인 지역은 유용한 종들이 정착하고 탄소를 격리하게 허용하며, 물리적 완충, 장벽 혹은 피난처 등으로 작용하는 것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종들과 함께 사람이 다시 살게 될 수 있다.

● 우리는 많은 종들이 그들의 존재를 위해 농장의 제한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통로의 방해는 그들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결과에 의존하는 다른 종들의 소멸과 같은 부정적 효과의 순차적 결말을 초래한다. 이 효과는 유용한 종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농사와 작부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 강건하고 지역에 적합한 품

종들의 유용성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발과 보급을 향해 작업할 때 증가한다. 어떤 품종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그것들은 멸실될 수 있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그들이 재배하는 종들에 유의할수록 향상된 품종과 성과 특성들이 발견되고 증식될 가능성이 더 많다. 유전 자원들을 농업인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은 근친교배와 계통의 약화를 방지한다.

● 유전물질의 자유로운 사용과 교환은 공통의 선이다. 공급과 소유권의 통합은 농업인들의 기회를 제한하며 식량 주권과 식품 안전을 위협한다. 제한된 관심은 편리성, 이익 혹은 제한된 성과특성과 같은 제한적 범위의 특성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들은 충분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유전적 기반을 줄이는 것은 전체 유전자 풀의 활력을 위기에 처하게 하며, 인간이 폭넓은 선택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한한다.

글 최관호 휴살림연구위원회장

터키의 흙 에게해 지방은 붉은 장미색의 적색토

휴살림 후원으로 터키(Turkey) 제일의 도시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 18차 국제유기농업은 동연맹(IFOAM)총회에 참석하고 청록색의 지중해연안 흙을 돌아보게 되었다. 터키는 6.25참전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사상자를 낸 우리의 우방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게 만든 헌신과 현지 어디서나 그들로부터 쉽게 형제(brother)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음에 오직 감사할 뿐이다. Turkey하면 서양인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즐겨먹는 북미원산의 닭 종류(鷄)에 속하는 칠면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즐겨 패물로 달고 다니는 청옥색의 터키석(turquoise, CuAl6(PO4)4(OH)8.4H2O)은 고대 불어에서 유래된 광물명으로 예전 동서문물 교역의 요충이었던 터키지방(Turkestan)을 통해 유럽으로 전래된 연유로 이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다. 12월의 탄생석이기도 한 터키석(Turkish stones)

은 함유한 구리의 발색으로 하늘색, 청록색 등을 띠는 괴상 또는 포도상 조각으로 된 보석광물인데 터키에서 생산되는 돌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산지는 다른데도 있다. 터키의 흙은 기후, 모재, 식생, 지형 등 생성요인이 다양하여 많은 종류의 흙으로 분류된다. 터키는 7 지방으로 나뉘고 이번에 주로 답사한 에게해(Aegean sea) 지방은 지중해 지역과 함께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는 곳으로 대표되는 적색토(terra rosa)가 여행한 국도 주변에 널리 있다. 이를 원료로 한 벽돌공장이 연도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우리도 수입해다 쓰고 있는 지중해식 붉은 벽돌이 산터미로 쌓여있다. 붉은 장미(rosa) 색의 흙(terra)이란 의미를 지닌 테라로사는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조건에서 산화제2철인 적철광의 작용으로 주색인 적색이 발현되고 철 성분은 흙에서 흙색이 결정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다. 온난 습윤한 겨

울철 산화철이 환원하여 침철광이 되면서 황갈색으로 변하고 유기물의 집적으로 표층은 암갈색을 띠며 비옥하다. 여름 고온 건조시기에는 수분량이 위조점 아래로 떨어지므로 수원이 있는 곳에서는 점적관개로 한해를 극복한다. 석회암을 모재로 발달한 테라로사는 석회물질의 용탈로 생성된 세립질의 흙으로 산화철의 함량이 높아 붉은 색을 띤다. 여름에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일사량이 많아 덥고 건조한 가뭄이 계속돼 이 같은 기후에 잘 견디는 올리브와 같은 관목형의 식생이 우세한데 이런 종류의 과수의 작은 잎은 단단하

고 두꺼우며 키가 작아 수분을 쉽게 잃지 않고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딘다. 오렌지, 포도, 무화과, 헤이즐넛과 떡갈나무 등이 지중해성 농업을 대표하는 수목이다. 겨울에는 일기가 불순하고 강우량이 많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 자급용인 밀이나 보리를 재배하기도 하며 해발이 높은 산간에서는 기온이 낮고 여름철에도 비가 내리므로 목초를 재배한다. 아나톨리아(Anatolia)구역은 터키의 중앙내륙 및 동부와 남동부에 위치하여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지역으로 갈색울색토(栗色土, chestnut)가 대표하며 강우량이 250~500mm 의 반

건조(semi-arid)기후로 식생은 초목류이고 경지에서 곡물을 생산한다. 흑해와 지중해지역의 활엽수림에서는 유기물이 풍부한 갈색의 삼림토(brown forest)가 발달한다. 서부흑해 지역에서는 회백색의 표백층(AE)이 있는 포드졸(podzol) 흙이 발달하는데 이는 침엽수림에서 철, 유기물과 알루미늄이 용탈되어 B층으로 이동되어 생성된다. 대체로 양분이 아래층으로 유실되어 비옥도가 낮다. 강과 하천이 있는 곳에서는 충적평야(alluvial soils)가 발달하게 되고 주요 곡창지대로 자리 잡게 된다.

글 신제성 휴살림 고문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경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경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홍콩 '한국 유기농 고찰단' 흙살림 견학

미생물 배양 시설과 퇴비 제조 과정 등 관심

'홍콩 유기 자원 중심'의 한국유기농업 고찰단 30여명이 지난 10월 6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흙살림 유기자재 공장 토종농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1991년 '괴산미생물 연구회'로부터 시작한 흙살림이 유통으로까지 발전한 과정을 살펴보고, 토종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토종벼와 잡곡, 고추, 배추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 친환경농업 인증체계와 꾸러미 유통과정 등에 대해 질문하는 등 유기농업에 대한 높은 학구열을 보여주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유기농자재 공장을 방문한 고찰단에 "유기농의 핵심은 흙을 살리는데 있다. 우리는 미생물 종균을 1000여종 보유하고 있으며 축분을 사용하지 않고 이들 미생물을 활용하여 흙을 살리는 기술을 높이고 있다"고 공장을 소개했다. 고찰단은 미생물배양실과 유기농자재 생산 시설을 주의깊게 둘러보았으며, 특히 균배양제 등 퇴비의 가격과 효능, 소비자 반응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콩의 한국유기농업 고찰단 30여명이 지난 10월 6일 흙살림 유기자재 공장을 방문했다.

팝콘향 고품질쌀 예약판매



저아밀로오스쌀 '골든퀸' 차지고 윤기 자르르

고소한 팝콘향이 나는 고품질쌀을 예약판매합니다. 흙살림에서 밭을 지을 때 입맛을 자극하는 은은한 팝콘향이 나는 '골든퀸(예명)' 햅쌀을 판매합니다. 골든퀸

은 인위적으로 팝콘향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쌀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풍겨나오도록 개발된 새로운 품종입니다. 또한 저아밀로오스(±12.5%, 일반 햅쌀은 16~19%) 쌀로서 밥이 차

고 윤기가 나며 질감이 좋습니다. 게다가 밥의 노후화가 더디고 식으면 팝콘향이 살짝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밥 짓는 냄새에서부터 군침 돌게 만드는 고품격 맛있는 쌀 골든퀸을 주문하시려면 흙살림 푸드 080-858-6262로 문의하세요.

영지버섯 배양 토종쌀 연구 한국유기농업 학회지 게재

이태근 흙살림 회장과 양병근 흙살림유기농연구소장 등이 공동 연구한 '영지버섯으로 배양된 한국 유기농 토종 쌀의 생산 조건과 혈당강하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이 한국유기농업 학회지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영지버섯으로 배양된 유기농 토종 쌀이 항당뇨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영지버섯의 액체 배양과 유기농 토종 쌀에서의 영지버섯 배양 및 생산된 유기농 토종 영지버섯 쌀을 당뇨가 유발된 흰쥐에 경구투여한 후, 혈당, 혈청 지질 및 alanine aminotransferase(ALT)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활성을 조사하였다. 혈당 강하 효과 시험에서 당노

유발군에서, 영지버섯으로 배양된 유기농 토종 쌀의 급여군에 있어서의 혈당의 감소정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영지버섯으로 배양된 유기농 토종 쌀의 급여군에 있어서의 혈장 total cholesterol과 triglyceride는 대조군에서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ALT와 AST 활성은 대조군에서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이들을 배양과 유기농 토종 쌀에서의 배양 손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의 일환으로 서원대학교 친환경 바이오 소재 및 식품 센터(BioRIC)의 2011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유칼립투스 톱밥

압축 미세칩 450kg/톤백

제품 특징 및 효과

- 유칼립투스 단일 수종으로 품질 안정화
- 유칼립투스 자체 향으로 축사 및 퇴비장 등 실내 환경 쾌적화
- 양궁력이 강하여 깔개 사용 시 가축 건강에 좋음
- 모기 등의 애충을 쫓아내는 자연적 살충효과
- 탁월한 부숙 효과로 퇴비 제조 및 토양 개선에 효과적 (pH 6.9)
- 높은 흡수율과 유기물 및 자체 영양소 풍부

용도

- 축사 바닥 깔개용 (소, 돼지, 오리, 닭)
- 가축분뇨 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유기질 비료 제조
- 퇴비 제조 및 상토 제조용
- 버섯 배지용
- 우드 펠릿 원료 및 연료용



정밀하고 신속한 휴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휴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다성분	102 항목	140,000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학(시비처방서 포함)	질소 등 9항목	30,000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종검사	정성	맵쌀	100,000
		맵쌀	200,000
	정량	찹쌀	3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20,000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 부가세 별도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분석 · 잔류농약 043-292-8179(담당: 홍정옥, 박인영) · 중금속 및 퇴비 070-4035-4958(담당: 강수진)
상담 · 일반 및 병원성미생물 070-4035-4658(담당: 김준근) · GMO, 쌀현미품종, 토양이화학 070-4035-4958(담당: 강수진)

휴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종균 공급시작

제품구성

- 휴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효모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종균
- 휴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종균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배양문의

- 양병근 박사 070-4035-4658



괴산 유기농 페스티벌 참가

흙살림 친환경농자재·토종종자 전시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괴산군의 유기농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소비자, 유기농업인이 참여하는 제1회 괴산유기농페스티벌이 10월 3일 괴산군 문화체육센터 잔디구장에서 개최됐다. 괴산군유기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농업인, 관련단체 및 기관,

도시소비자(ICOOP 생협, 한살림, 흙살림 등 소비자 단체), 일반소비자 등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 흙살림은 이번 행사에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와 인증체계, 가치 등을 알리고, 친환경 농자재를 전시하는 것과 함께 특히 우리의 토종 종자

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데 앞장섰다. 그밖에 관련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천연염색, 짚풀공예, 솟대만들기, 떡메치기, 한지공예, 고구마캐기 등 체험 마당과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 산양삼 홍보 등 홍보마당, 브로콜리·양배추·여주·된장·유정란 등을 파는 로컬푸드 판매마당을 이끔면서 행사장 곳곳의 가족 단위 손님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사로잡았다.



괴산유기농 페스티벌에 참가한 흙살림은 유기농자재와 토종 종자를 전시하는 전시마당을 주관했다.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 2014.10.08.(농관원 고시 제2014-38호)

1. 유기

심사사항	현행	개정
가. 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1) (생략)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인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나) ----- (예: 인삼, 더덕 등)을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나. 재배 포장·용수·종자	1) (생략)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7)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 -----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3) ----- -----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7) ----- 종자, 상토 및 -----
다. 재배 방법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1)·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2) ----- ----- 자재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한해 사용하고 ----- 3)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2. 무농약

심사사항	현행	개정
가. 경영관리 및 단체 관리	1) (생략) 다)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인삼)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다)-----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나. 재배 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농약의 검출한계는 0.01ppm으로 한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 -----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3) ----- -----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6) ----- 종자, 상토 및 -----
다. 재배 방법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2) ----- ----- 자재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한해 사용하고 ----- 3)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3.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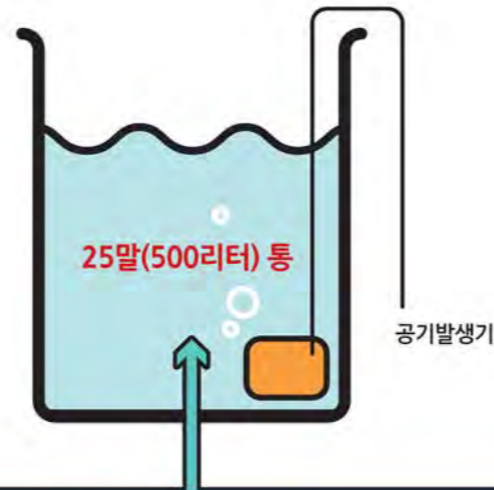
심사사항	현행	개정
다. 원료 관리	1) 원료 인증품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농축산물을 포함한다)을 -----
라. 취급 방법	1) 인증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1)의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1) 인증품 또는 작업장 및 기계기구 등을 -----

■ 최근 3년 이내 잔류물질 검출 및 기타 인증기준 위반 등의 위험도가 높은 인증사업자 생산과정조사시, 대상의 5% 이상 불고지(不告知) 조사 실시
→ 기준 위반 우려 건 위주로 불고지 조사하여 관리의 실효성 제고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

흙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액비 제조세트



<p>활인산 10L</p> <p>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사-4-1-119</p> 	<p>빛모음 500mlx2병</p> <p>뿌리보호, 활착, 세근발달 공사-4-1-26</p> 	<p>생선아미노산 10L</p> <p>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사-1-1-21</p> 	<p>바이오숨 10L</p> <p>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사-3-1-4</p> 	<p>해초 250gx2병</p> <p>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사-4-1-24</p> 
				<p>당밀 10L</p> <p>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p>

구입 및 공급 문의 | 043-216-8179 농자재 사업본부



고밀도 광합성 세균

빛모음 PSB 500ml

- 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등재
- 고밀도로 농속된 종균 순수 배양 제품
- 농업 및 수산업에 사용 가능



친환경 수질 환경 개선제

빛모음 PSB 500ml

- 고밀도 광합성 세균
- 수족관, 양어장, 애원동물 환경 개선
- 수질 정화 및 악취 저감 효과

유기농 벼 경작 생산성 관행보다 높다

세계 유기농업 리더에게 듣는다<5> 프랭크 아이폰 (IFOAM 부회장)



프랭크 아이폰 IFOAM 부회장

유기농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중의 하나는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식량요구를 맞추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농업이 땅을 황폐화 시킴으로써 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기농업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고 또한 지속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월 3일 괴산에서 열렸던 '제4회 아시아 유기농업대회'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프랭크 아이폰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부회장이 쌀의 유기적 생산방법이 기존 관행농업에 못지않게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례를 밝혔다. 이에 홍살림은 프랭크 아이폰 부회장의 논문을 통해 그의 주장을 심기기로 한다. 편집자주

■ 인도와 태국의 유기농 벼 이니셔티브

2011년에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소매기업인 쿵은 인도 북부와 태국 동부에서 혁신적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지속 가능한 유기농 및 공정 무역 인증을 획득한 벼 경작을 촉진하고 있다. 스위스의 기업 간 단체이자 지역 NGO이면서 농민 협동조합인 HELVETAS와 협력하여, 쿵은 소농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자신들의 상품을 공정 무역조건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도의 경우 향이 뛰어난 전통적인 바스마티 벼 품종을, 태국

에서는 자스민 벼 품종을 집중적으로 생산한다. 추가적으로 유기농법을 최적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물 소비를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였다. 또한 농민이 생산 시스템을 다변화하고 윤작을 통해 경작한 작물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추구한다.

1. 생계 : 벼농사를 통해 수익을 증진하고 보장.
2. 환경 : 물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
3. 상업적 가치 : 소비자

에게 고품질의 인증받은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 인도의 경우 유기농 바스마티 벼 생산을 위하여, 외판 지역의 소농과 계약을 체결한 현지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본 기업은 농민들에게 투입물과 교육, 확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윤작으로 생산, 수확한 바스마티 벼를 전량 구매한다. 태국에선 농민을 위해서 유기농 자스민 벼를 포장, 판매하는 두 곳의 농민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본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400명의 농민이 인증 받은 논에서 3500톤을 생산했다. 양국 모두에서 본 프로젝트는 과육, 채소 및 녹비 작물을 포함하여 작물의 유작 다변화를 지원한다.

■ 지속 가능한 유기농 벼 경작의 영향력

인도에서 표준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의 비교에 기반하여, 바스마티 유기농 벼 생산 시스템의 차이점을 평가할 목적으로 인도의 유명 농업대학 중 한 곳과 협력하고 있다. 2012년에 시범 농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3년에 서로 다른 종류의 투입물 취급법, 작물 패턴, 농업용수 시스템 등에 따른 생산량을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농법에 따른 유기농장의 수확량은 합성 비료 및 살충제를 사용하는 관행 농업 시범 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준화된 유기농보다 일정 정도 높은 수확량을 보인 두 가지 유기농법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논에 심기 전에 녹비작물 세스베니아 처리를 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벼 강화체계)에 기반한 처리로서 초기 이앙, 더 넓은 공간 확보 및 AWD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참여적 기술 개발을 통해, 36개 농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처리법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유기농 비료와 농업용수를 이용하지만 연구소 보다는 합성비료를 적게 사용하였고, 생산량은 유기농 시범농장뿐만 아니라 관행 시범농장에서 모두 20% 정도 줄었다. 연구소 뿐만 아니라 AWD 및 SRI 처리를 한 농장에서 모두 일반적인 유기농법과 동일하거나 약간 더 높은 생산량을 달성하면서도 30% 정도 농업용수를 적게 사용했다. 동시에 SRI 처리를 한 경우, 일반적인 유기농법에 비해 메탄배출량을 26% 정도 감축했다. 향이 좋은 전통적 벼 품종인 바스마티는 혼성논에서는 수확량이 적었지만, 관행농산물 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 유기농산물의 프리미엄 20%에 덧붙여 저투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50~70%를 감안하면 유기농 바스마티 경작은 관행식 혼성논농사와 비교하여 농민입장에서는 50~130% 정도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 인도와 태국 유기농 벼 생산 프로젝트 전망
본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의 연구소 내 시범농장 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에서 예비조사 결과를 통합할 것이다. 워리히 소재 연방 기술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농법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과 영양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본 프로젝트는 취수 구조, 운하, 연못 및 우물 같은 농업용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WWF(세계자연보호기금)와 협력하여 농민들을 지원하며, 바이오 가스 시설을 건설함과 동시에 펄프 채취를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퇴비 및 비료의 관리 개선을 추구한다. 식품 가공 관리 및 참여 농민 단체의 일반 관리 능력 개선 측면에서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더욱 다양한 식량 작물을 생산하고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추가지원을 제공하며 생산 시스템을 다변화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유기농 벼 생산의 잠재력 활용

본 프로젝트의 예비 결과를 보면, 지속 가능한 유기농 벼농사는 몇 가지 중요한 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행 농민이 배출하는 오염의 대안으로서 유기농업은 상당한 수확량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토양 비옥도 및 농-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기농 논농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농업용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에 SRI같은 개선된 유기농법을 적용한다면 온실 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농민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상품의 시장성 또한 보장 가능하다. 이러한 잠재적 혜택을 달성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공 요인을 토대로 유기농 쌀 이니셔티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업용수 관리 및 작물 윤작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유기농시스템 설계.
- 교육, 품질관리, 인증 및 포장 개선을 위한 농민들의 효율적 조직화.
- 마케팅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민간 분야와 효율적인 협업.
- 생산 시스템에서 추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적 혁신 및 발전.

지난해 인도에서 농법별 투입량·생산량 비교 AWD(물대기와 물대기 교대법) SRI(벼강화체계) 농업용수 30% 적게 쓰면서 생산량은 증가



지난 10월 3일 괴산에서 열렸던 '제4회 아시아 유기농업대회' 학술 심포지엄에 참가한 프랭크 아이폰 IFOAM 부회장(앞에서 두번째줄 맨 오른쪽).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홍보 필요 ... 유기종자 등 현장연구 지원 절실하다”

농식품부 장관 주도 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

시간 : 2014년 10월 17일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휴살림 토종연구소(충북 괴산)
 참석자 : 경동호 괴산친환경감귤작목회장, 권오연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종관리팀장, 김법석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김진호 농진청 유기농업과 연구관, 박종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유훈호 충북 유기농산과장, 이도훈홍사량영농조합법인대표, 이도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도필 경북친농연 회장,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이태근 휴살림연구소장, 임각수 괴산군수,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 주형로 정총회장(이상 가나다 순)

지난 10월 17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휴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이도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친환경농업 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90여분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휴살림은 이번 간담회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상세히 전달한다.

이도필 장관 - 취임 후 1년 7개월 간 농촌이 온 국민의 일터이자 살터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 이 자리엔 농업의 본래 기능인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일해 온 분들이 많이 오셨다. 최근 친환경이 양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열려 하진 않는다. 정착 염려되는 것은 1976년 경동호, 1986년 한살림이 활동을 시작하는 등 그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과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내실을 기하고 있는지 여부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개방화 시대에 한국 농업이 나아가 갈 길, 농업의 살 길 등 여러 가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태근 소장 - 휴살림이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앞세운지 올해로 23년이다. 휴살림의 목표는 유기농업의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초창기부터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결국 흙과 종자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23년간 흙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교육하고 공직해왔다. 또 흙에 맞는 종자가 무엇일까 고민해왔다. 미국 등은 GMO 방향으로 향했지만 휴살림은 지난 10년 동안 토종종자를 찾아왔다. 현재 1500여 종을 수집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육성정책에서 규제 중심으로 최근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기농업이 1% 수준이



지난 10월 17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휴살림 토종연구소에서는 이도필 농식품부 장관 주도로 친환경 농업 발전 간담회가 진행됐다.

유기농업 규제보다 육성이 여전히 중요한 시기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홍보 고려 사람·생명 중시하는 교육 통해 신뢰 쌓을 수 있어

장에서 연구해 온 것들이 현장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농민들의 연구를 지원해달라.

박종권 회장 -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런데 자조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단돈 5만원 내는 사람이 없다. 자조금을 농협이 대안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도 스스로 해보자” 하겠다는 각오라면 정부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

박종권 회장 - 인증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이 필요하는 등 규제가 많다. 농민들 스스로 관리를 두는 것하고 정부가 관리를 두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도필 장관 - 농민들 스스로 하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인정해 주면 자연스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정현찬 회장 - 농업기술이나 생산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

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이다. 사람의 가치 중심, 생명 가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농업은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소비자의 문제이다. 서로간의 이해가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 농식품부에서 가치관 교육에 고민해달라. 두 번째는 소농 중심으로 유기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농사도 어렵고 인증 받기도 어렵다. 소농들은 인증 수수료도 부담이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두 가지 인증 받으려고 수수료 내는 건 부담이다. 대농 중심으로만 생산, 인증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가족농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이도필 장관 - 교육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4450억이다. 지난해보다 좀 줄긴 했지만 내

용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

경동호 회장 - 생산 관리자, 중간관리자 문제가 어렵다. 한 살림은 한 살림 소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하지만, 70명 단체를 한 사람이 전담해 관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농민들 스스로도 교육 등과 관련해 노력하고 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주형로 회장 - 정총회가 올해로 36년째다. 처음엔 유기농업에 미쳤다. 두 번째는 마을, 집단화에 미쳤다. 요즘은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과 농업이 함께해야 한다. 밭밭과 동물농장을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 농업을 가르쳐야 할 시기가 있다.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

교육을 맡았어야 했다. 일본의 경우 예능고등학교를 만들어 유기농 지도자를 키워 지키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중중고를 생명과학고로 이름을 바꿨다. 전교생 640명 중 몇 명이 농사를 지었을까.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해내기가 쉽지 않다. 농고가 성적이 40~60점 받는 아이들이 통과하는 학교일 뿐이어서는 안된다.

도시에다 눈을 만들어보자. 실제 초등학교에 만들어봤던 아이들이 25%가 기회만 되면 농촌에 살고 싶다고 하더라. 덕분에 육성없는, 폭력없는 학교가 됐다. 이 아이들은 주변 아저씨들이 생산하는 쌀을 사서 먹더라. 농업을 가르쳐야 할 시기가 있다. 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

이도필 장관 - 초등교, 유치원 등에 체험단을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

주형로 회장 - 정농생활학교를 만들어 절반은 전통문화, 미장, 발효 등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도필 장관 - 현재 우리나라 농고 16개를 확 바꿔보고 싶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귀농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대학도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도 기존 학교를 좀 더 내실화 시켜보고 싶다. 기술과 철학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기르고 싶다. 선계농 등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도필 회장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너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도필 장관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너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도필 장관 - 초등교, 유치원 등에 체험단을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

주형로 회장 - 정농생활학교를 만들어 절반은 전통문화, 미장, 발효 등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도필 장관 - 현재 우리나라 농고 16개를 확 바꿔보고 싶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귀농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대학도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도 기존 학교를 좀 더 내실화 시켜보고 싶다. 기술과 철학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기르고 싶다. 선계농 등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도필 회장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너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도필 장관 - 초등교, 유치원 등에 체험단을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

주형로 회장 - 정농생활학교를 만들어 절반은 전통문화, 미장, 발효 등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도필 장관 - 현재 우리나라 농고 16개를 확 바꿔보고 싶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귀농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대학도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도 기존 학교를 좀 더 내실화 시켜보고 싶다. 기술과 철학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기르고 싶다. 선계농 등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도필 회장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너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도필 장관 - 초등교, 유치원 등에 체험단을 만들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

주형로 회장 - 정농생활학교를 만들어 절반은 전통문화, 미장, 발효 등등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

이도필 장관 - 현재 우리나라 농고 16개를 확 바꿔보고 싶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귀농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대학도 몇 개 더 만들고 싶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도 기존 학교를 좀 더 내실화 시켜보고 싶다. 기술과 철학을 가진 전문농업인으로 기르고 싶다. 선계농 등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도필 회장 - 농자재, 농기구 등 보조금 관리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 등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년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와 농기구의 가격이 너무 올라 보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줘서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가 생각한다. 아무튼 유기농 3%를 농정의 목표로 삼아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친환경 확대, 확대 그러는데 10년 더 늘리겠다 1000년 더 늘리겠다 등등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작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겨울 작물에 대한 직불금 최저비용 등 소요소에서 드러나면 변모되지 않을까.

농민의 문제를 국민이 자기 문제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연속극에서 나오는 밥상이 우리 보리밥이라든가 ‘괴산 고추네’ “유기농산물이라 맛이 좋네” “농산물 제값주고 샀냐” 등등 대사에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도필 장관 - 친환경 농업하는 아이들을 나오는 드라마 ‘모던파머’가 방송된다. 홍보에 관심을 갖는 것 필요하다.

유훈호 과장 - 충북도도 교육이나 홍보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유기농 특화도를 선포했다. 괴산유기농산업을 테마로 분석 내용을 다뤘다. 농민들이 이의 제기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가.

권오연 팀장 - 분석서기, 장비, 분석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농약 나왔다고 바로 인증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의도적 오염일 때만 인증 취소가 된다. 실험 같은 시기에 재취했다 해도 시료 분석 방법, 포장, 운송 등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한다.

이도필 장관 - 친환경 유기농을 분류하고 기준을 세운 것은 소비자를 신뢰에 맞추어 구분했을 거라 예상한다. 하지만 아직 기준조차 없는 것들도 많다. GAP, HACCP 등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도훈 대표 - 유기농 벼를 키우는 우리 지역은 호미를 뿌려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도필 장관 -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

이상국 회장 - 농식품부가 아니라 유기농식품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결맞은 시기가 아닌

정리 이병헌 기자

정리 이병헌 기자

생물서식처 만들기와 '생태면적률'

텃밭 정원 가꾸기 <9>

옥상정원 등 토양 두께 20cm 이상이 좋아

유엔에서 제시한 지구환경에 대한 경고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도시집중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또 체험하고 있는 숲의 감소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면적의 증가 현상을 보면서 싱그러운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하여 각각의 생명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모두가 새롭게 가지게 된다. 흔히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라고 말하듯이 주변의 숲과 들판이 빠르게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모두가 함께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녹지나 빗물이 스며들 수 있으며, 새와 곤충들이 쉬어가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생태교류공간들을 우리주변에서 많이 만들고 계속하여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텃밭정원 가꾸기와 같은 작은 움직임이 지구를 살리고 주변의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순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생태면적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자연 순환기능이란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로서의 기능과 기후를 조절하고 공기

를 정화하는 기능, 그리고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순환시키는 등의 일들을 말한다. 환경부의 기준에 따르면 자연녹지 지반이나 하천, 강과 같은 수면공간(1.0)을 기준으로 옥상녹화(0.5), 벽면녹화(0.4), 투수성 포장재(0.3)의 비율로 그 효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주변의 다양한 인공구조물이나 건물공간에 옥상녹화를 하거나, 아파트나 주택지의 주변에 텃밭을 조성하여 생태면적률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때로는 수직벽면에 담쟁이와 같은 덩굴식물을 심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비오톱(Biotope)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공간으로서 생태면적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옥상정원이나 옥상텃밭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토양의 두께가 20c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식생층, 토양층, 배수층, 방수층 등 식생기반에 있어서 하부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벽면녹화를 할 경우에는 식물을 지지할 수 있는 녹화유도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며, 줄기가 10cm 이상 굵어지는 덩굴종류의 식물은 바람에 의한 넘어짐 등의 우려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덩굴이 위에서 아래로 생장하는 하수형의 경우는 식물의 생장 길이에 따라 피복면적이 달라진다. 빗물이 스며드는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포함



하는 물의 순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에게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골재를 활용한 투수성 포장과 인공적인 투수소재를 이용해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투수포장 조성 시에 유의할 사항은 투수성능이 초기의 설치시와 비교해 볼 때 80%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지역이나 농촌에서 주택을 건축하거나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식물이 생장할 수 있고 빗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생태면적률이 높은 환경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생태공간을 나의 생활공간 주위에 직접 조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의 지킴이로서의 역할 또한 감당하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글 신인환 조경기술사 및 휴스림 도시농업자문위원



▲나비 모양으로 조형성을 부여한 일본의 녹화 사례.

◀옥상 녹화 비오톱 사례.

▼ 주차장을 잔디밭으로 조성한 사례.



유기농 도시농업 신제품

텃밭자재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체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흙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일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일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잔달레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스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명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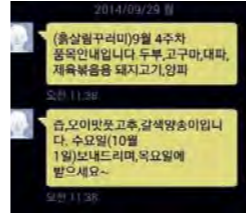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휴스림

“국내산 제철 꾸러미 참 착해요~”

블로그 살짝 엿보았더니 ...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친환경 흙살림 꾸러미가 드디어 첫 도착!!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도 보내주셨던데! 친환경 국내산 제철 먹거리를 매주 새롭게 제공하는 흙살림 꾸러미! 음- 착하다 :) 오호- 날씨 영향받지 않도록, 스티로폼박스 안에 아이스팩과 함께 왔다 친환경 두부, 유기농 고구마, 무농약 대파, 유기농 오이맛 풋고추, 무농약 갈색양송이, 무항생제 돼지고기 앞다리살, 친환경 양파즙, 앳, 목욕에 없던 유기농 토마토즙이 중경으로 끼여 왔네.

음식에 대해 예민한 저로서는 완전 착한 상품 * 냉장고로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못 잡겠다! 오이맛고추가 너~무 맵겨서 바로 찬물에 호로록 씻어서, 이걸 밥을 먹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유기농 오이맛고추를 먹기 위한 식사! 아삭 아삭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 이렇게 안내지도 같이 왔는데, 깨알같이 읽을 만 했다 :) 재료로 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도 소개되어 있어서 요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좋을 것 같음- 출처 블로그 <감성손가락>



벌레도 함께 배달 ... 더 믿음이 가요

흙살림 꾸러미로 무얼 해먹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유기농 아욱을 꺼내서 아욱죽을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 기운도 있고 입맛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입맛도 살리고 한 끼 식사도 똑딱 해결할 겸 건강만점 아욱죽으로 만들어봤어요. 아욱국보다 아욱죽으로 먹으니 밥알이 퍼져 있어서 그런지 꿀떡꿀떡 잘 넘어가니 더 맛이 있더라고요. ^^ 유기농 아욱 완전 싱싱해 보이죠. 어찌나 싱싱하던지 벌레 한 마리도 같이 배달되었네요~ ㅎㅎ 유기농 제품이라고 벌레가 있으니 더욱 믿음이 팍팍!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싱싱

한 아욱! 유기농 아욱이라 그런지 구멍이 숭숭. 벌레먹은 아욱이 보이시나요. 완전 싱싱함과 건강한 채소라는 산증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기농 아욱을 굵은 줄기 부분은 벗겨주시고 가는 줄기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손질한 아욱을 손으로 바작바작 주물러 치대면 푸른물이 빠져주는데요. 저의 엄마 말씀은 풋물을 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풋내가 안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냄비에 육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된장을 풀고 건새우를 넣어서 기본 베이스 육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욱국을 만들지만 저는 아욱죽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밥 한 덩어리를 풍덩 해줍니다.~ 원래 죽은 오래도록 살살 저어줘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팔팔 끓고 있는 냄비에 적당히 손질해 놓은 아욱을 넣어줍니다. 푸르스름 아욱이 들어가니 색깔이 더욱 입맛을 더 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을 아욱에 관하여 “가을 아욱은 사위만 준다” 또는 “가을 아욱은 자기 계집도 내쫓고 먹는다” “가을 아욱국은 문달아 걸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단백질, 무기질,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답니다. 출처 블로그 <해피걸>

중남리 HEUKSALIM | 흙과 농민과 환경을 살리는 흙살림

흙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흙살림꾸러미

친환경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매주 집에서! 흙살림꾸러미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생활꾸러미

가장 기본이 되는 꾸러미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우정민, 우리콩 두부 및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월 4회 : 10만원, 월 2회 : 5만원]

채소꾸러미

채식인,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입니다. 생활꾸러미에서 계란이나 육가공, 수산가공품은 빼고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모았습니. [월 4회 : 6만원]

과일꾸러미

과일은 농약없이 기르기 힘들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과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과일꾸러미입니다. [월 2회 : 9만원, 월 1회 : 4만원]

흙살림꾸러미는 무엇이 좋은가요?

- 건강한 먹을거리, 직거래로 편안하게 받아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매주 품목을 달리하여 보내드립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
밭에서는 농부가 안전하고, 밥상에서는 가족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나눔 공동체 실현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 매주 꾸러미가 기대돼요!
반복되던 식단에서 벗어나 꾸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식단을 완성하세요.

꾸러미 구입문의 080-858-6262 | 010-9864-8007(문자상담가능) | shop.heuksalim.com

Copyright © VOOZ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일본 유기농업 중추 ‘유기농업연구회’

일본의 유기농업 현황 ⑥

4000명 회원 활동... 제휴·자급 운동

■ **일본유기농업의 시작**
이번에는 일본 유기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일본유기농업연구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유기농업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 일본 유기농업의 시작은 1950년대 이후 고도경제 성장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 각종 공해문제와 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 때문이었다. 1956년에 이미 농업기술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유기수은계 농약이 벼짚과 양겨에 잔류해 있음이 밝혀졌고(일본식품병리학회), 1959년에는 쿠마모토 대학의 연구팀이 1956년에 쿠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메틸수은이라는 것을 밝혀내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하여 1966년에는 국회 중의원들로 구성된 과학기술진흥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농약의 잔류독성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대책 수립에 관한 건’이라는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다음 해인 1967년에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약잔류의 긴급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그 결과, 1968년에는 사과와 포도, 오이, 토마토 등 4개 작물은 BHC, DDT, 파라치온, 비소, 납의 5개 농약성분에 대해 처음으로 농약잔류기준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공해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었다. 같은 해인 1968년에 후쿠오카현에서는 양계의 배합사료에 전기제품의 절연제 성분이 섞이는 PCB 중독 사건과 오염된 쌀겨가 섞인 채 출하되어 많은 사람들에

게 피해를 주었던 카네미 라이스오일 사건으로 유기염소계열(PCB)의 위험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에는 BHC, DDT 등 유기염소계열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는 등 농약관리법이 개정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각종 공해문제는 결국 그들의 먹거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렇듯 위험한 농약의 노출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산된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들인 지방의 안전한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면 모두 구매하겠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제휴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단체가 바로 일본유기농업연구회이다.

■ **일본유기농업연구회**
농약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한 생산자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이라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한편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소비자들은 무첨가식품이나 안전한 계란과 우유와 같은 것을 찾으려 했다. 그러던 가운데 당시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소장이면서 협동조합운동가인 ‘이치라쿠 테루오’ 씨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인 조직 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자연농법가 ‘후쿠오카 마사노부’ 씨를 비롯해 의사



일본유기농업연구회는 재래종자 교환 모임도 갖고 있다.

로서 먹거리와 농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쪽 연구해오다 무농약재배의 중요성을 알려왔던 ‘아나기 기료’ 씨, 그리고 과다한 농약에 의존해온 것을 비판하며 농촌의학을 실천해온 ‘와카즈키 토시카즈’ 씨 등이 함께 하면서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결성되었다. 1971년도의 일이다. 처음에는 미국 유기농업운동의 선구자인 로데일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등 먹거리와 의학, 농학 등에 관한 연구회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3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해나가자는 자발적인 실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1974년의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자립하는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도와가며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농협과 생협을 포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휴하는 실천운동의 장임을 강조하였다. 당시에 이미 생협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단순히 중간업자가 없는 직거래나 가격

이 짠 공동구매를 넘어서서 차원의 활동을 중시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가능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산량과 가격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운반과 배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형태의 ‘제휴’라는 운동이다. 그리하여 지난번 글에서 소개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10가지 제휴의 방법’이라는 것이 1978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일본유기농업연구회에서 또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자급’이라는 것인데, 자급을 기초로 한 농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작물을 소량으로 조금씩 생산하고 축산을 결합한 유축복합소농경영을 해야 하며, 퇴비나 사료, 종자와 같은 것도 자급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순환적인 농업을 말한다. 연구회는 환경파괴가 따르지 않

도록 땅심을 유지 및 배양해가면서 건강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또한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 전반의 개선에 힘쓰고, 지구상의 생물이 오래도록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약 4,000명의 회원들과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다. 지금도 재래종자 교환 모임이라든지 매주 실시 중인 귀농자들을 위한 공부 모임, 여름과 겨울에 실시하는 현장교류회 등이 진행 중이며, 1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는 전국의 회원들이 한 곳에 모여 교류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일본의 유기농업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글 김기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홍살림 자문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와 결합,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위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객관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창읍 리리 1길 7 오창벤처프리자 303호
전화 043-212-0934 전송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ic.kr 이메일 admin@kafic.kr



마샌드위치로 가을과 이별 준비하기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의 기(氣)에 음식으로 얻는 후천의 기(氣)를 더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간다. 선천지기(先天之氣)는 우리 몸을 오장육부의 위치에 따라 상중하로 나눌 때 가장 아래쪽에 있어 하초(下焦)로 분류하는 신(腎)에서 출발하므로 모든 식물의 뿌리가 땅 아래에 자리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땅의 기운을 흠뻑 먹고 건강하게 자란 식물의 뿌리들이 사람의 건강에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물의 뿌리는 그 기운이 가을에 가장 왕성하니 가을에는 원기를 크게 보하는 인삼에서 시작해 무, 우엉, 토란, 마, 당근, 연근 등 다양한 뿌리들이 식탁에 올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

그 중 '마'는 선천지기(先天之氣)의 근간인 신(腎)과 후천지기(後天之氣)를 위해 일하는 소화기관인 비장(脾臟)은 물론이고 우리 몸의 기(氣)를 주관하는 기관인 폐(肺)에 두루 좋은 뿌리로 알려져 있다. 마는 산에서 나는 좋은 약이라는 뜻의 산약(山藥), 산에서 나는 토란이라는 뜻의 산우(山芋),

맛이나 모양이 감자와 비슷하다 하여 서여 등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맛은 달며 성질이 차거나 텅지 않고 평화로우므로 누구나 먹어도 좋고 늘 먹어도 좋은 대표적인 약재이며 음식의 재료라 말할 수 있다. 마에는 점액질, 사포닌, 전분, 비타민 C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 계통에 현저한 작용을 나타내고, 혈당을 낮추고 항노화작용을 하므로 수명연장의 효과가 있다는 약리보고도 있다. 마를 생으로 먹으면 신(腎)에, 익혀서 먹으면 비(脾)에 조금 더 치우쳐 보(補)하게 된다고 하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다.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는 백제 30대 왕인 무왕의 이야기처럼 마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도 있다. 어린 시절에 마를 팔아 생계를 꾸렸으므로 서동(馨童)이라 불렸던 무왕이 어찌어찌하여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을 하였다는 설화다. 마를 팔던 무왕 자신도 마를 많이 먹어 몸이 남성미를 풍기며 건강해졌을 것이므로 선화공주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라는 흥미로운 추측을 가능하게 하



마를 찌서 으갠 후 계란이나 좋아하는 채소와 곁들여 샌드위치 속재료로 넣으면 깔끔하니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한 끼 식사가 된다.

는 이야기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를 먹는 방법을 몰라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먹는 외에 별다른 조리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감자를 조리하는 방법 모두를 마 조리에 응용할 수 있다. 감자처럼 썰어 넣고 밥을 지어도 되고, 닭이나 생선 등을 조릴 때 큼직하게 썰어 넣어도 되고, 셀

러드의 재료로도 손색이 없다. 심지어는 찌서 으갠 후 계란이나 좋아하는 채소와 곁들여 샌드위치 속재료로 넣으면 깔끔하니 맛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한 끼 식사가 된다. 가을이 깊어가니 오미자음료와 썩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추수도 끝나가고 단풍도 마지

막 인사를 전하는 계절이다. 하루쯤 시간을 내서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한다면 좋을 때이니 그런 날 마로 속을 꽉 채운 샌드위치로 도시락을 싸서 간다면 속도 든든하고 마음도 편안해져 나들이가 한층 풍성해질 것이다.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고구려 때부터의 명절 10월 '상달'

웰빙식의 최종 진화 '세시음식'

음력 10월은 1년 중 하늘이 가장 높고 좋은 달로 여겨져 상달(上月)이라 하였고 주변을 정리하고 감사를 나누는 달이다. 상달에는 가정의 평안과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는데, 굿은 음식, 누린내 나는 고기류는 피하고 몸을 깨끗이 했다. 제물로 시루떡과 막걸리, 떡과 포, 과일과 나물 등을 함께 올리는데 붉은 팔 시루떡은 대개 여섯 시루를 찌고 상도 여섯 상을 차렸다.

세시 음식으로는 팔-무시루떡, 편수, 낙지연포탕, 무시루떡, 호박고지시루떡, 씩국 등이 있으나 최고의 음식은 단연 신선로다. 신선로는 본래 화통이 붙어있는 특수한 형태의 화로 이름으로 양반 집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올



신선로.

랐던 귀한 음식이다. 연산군 때의 정희량이 사화를 피해 산 속에 숨어 수화기계(水火既濟-수화 화의 오행이 균형이 잡혀 있어서 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의 이치로 화로를 만든 것이 시초라고도 한다. 조선말의 해동죽지, 조선요리학(1940)에는 정희량이 음식을 끓여 먹

었는데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 하여 그 그릇을 신선로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선로는 입을 즐겁게 해주어 열구자탕(悅口子湯)이라고도 하는데 음식의 맛과 모양뿐 아니라 먹는 방법도 독특하다.

신선로에는 쇠고기, 돼지, 닭, 꿩 등의 고기뿐 아니라 해산물, 견과류 등 25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최고의 음식이다. 문헌에 의하면 밑바닥에 쇠고기, 무, 생선전, 천엽전, 우간(牛肝)전, 미나리 또는 파를 담고 해산, 전복을 넣어서 맨 위에 황백, 버섯, 홍고추, 완자, 간 호두, 붉은 은행 등으로 마무리 한다. 맛, 시각, 향 뿐만 아니라 영양분까지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는 음식으로 다 먹을 때까지 식지 않는다는 장점도 지녔다. 출처 농촌진흥청 인테러빙 '세시음식'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거두어다 먹는게 ...

새벽마다 일개기 쫄면속으로 경치입니다. 안개속 나지막한 비닐하우스에는 골동 고추가 마르고 파지않 토마토가 터져 불웁니다. 먼 붉은 토마토 몇개 따오면 아침상에 풍성해 있습니다. 텅 빈대추 먹듯만 씹습니다. 가을이 떠들도마토 맛을 기대할수가 없지요. 또자라는 대추 고대웁니다. 거두어다 먹는게 예의일듯도 하고

● 자급종자 농가를 찾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자급종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흙살림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 흙살림 사무국 043-833-5004

이달의 흙살림 자재

잘붙어



- 1. 사용가능 범위**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일반 관행농업 사용 가능
- 2. 원료 : 목초액, 천연항산가리, 계면활성제**
- 3. 사용량**
- 살충, 살균제 희석 시 1000배 사용

약제 용해도 높고 전착력 우수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1) 자사(흙살림) 살충, 살균제와 혼용 사용 가능합니다.
- 2)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 3) 한번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4)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5)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동결된 제품은 완전히 해동 후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특징 및 효과

- 1) 국내산 참나무로 생산하여 장기간 숙성, 정제된 목초액이 포함된 제품으로, 천연우기산에 의해 비로나 약제의 용해도를 높여주며, 각종 미량요소의 흡수를 통해 건실한 생육을 도와줍니다.
- 2) 천연항산가리가 포함되어 있어 가리와 유황의 동시 공급으로 결핍증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 3)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제품과 혼용 시 효과를 증진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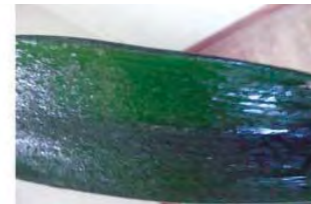
■ 표면장력 결과

물질	표면 장력(단위:dyne/cm)
수은	465
물	72.75
글리세린	63
잘붙어 1000배액	30.61
잘붙어 500배액	26.73
비눗물	25
알코올	22.3
헥산	18

- 화학농약 전착제 등록 기준 : 40이하
- 관행농업에서 사용하는 화학 농약 전착제와 비교하여도 전착력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희석하지 않는 처리구



1000배 희석액 처리구

흙살림 자재 직접 써보니 ...

균배양체 해마다 찾게 되네요



김재천(충북 음성군 원남면)
15년 전부터 흙살림 균배양체를 써 왔다. 내가 다니던 소이교회의 장로님께서 추천해 준 이후로 해마다 거르지 않고 사용했다. 원래 성격이 한 번 거래하면 쉽게 끊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품질이 받쳐줘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간에 딱 한 번 타회사 제품을 써봤는데 값은 싸지만 효능이 영 시원치 않았다. 난 전문 농사꾼이 아니다. 40

여 년간 농기계 수리를 해왔다. 그저 텃밭용으로 조그맣게 하우스 수박을 짓고 있다. 그렇다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배양체 효과가 확실하니 애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있으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제 가격에 사는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유기농 쓰면 음식 맛이 달라진다”

“유기농 재료를 쓰면 요리의 맛이 달라진다.”
흙살림 토종연구소를 방문한 재미교포 요리사 주인혁 씨의 말이다. 1년간 한국요리를 배우러 한국을 찾은 그는 미국에서 10년간 주방장을 지냈다. “유기농 재료는 채소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려면 당연히 유기농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이왕이면 근처 농장에서 열매를 아는 농부의 것을 선택한



다고 한다. 주씨와 함께 흙살림을 찾은 한국인 임양아 크리스턴 씨는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책을 읽고 나서 실제 미국에서 생명농법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한국 토종종자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양성에 놀라워했다.

신개념 기능성 복합 성분제

슈퍼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슈퍼도움이는 국내 환경에서 적용된 우수한 균주 중에서 선발된 미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장내 생태학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 철저한 사양실험과 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높은 균 밀도를 유지하여 항생제로 억제된 가족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 면역증강물질인 만니톨리고당, 베타글루칸, 유카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억제하여 장내 미생물총에 유리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 미생물의 대사 부산물이 장내 산도를 조절하므로 유해균 발생이 억제됩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유전자 조작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조균, 유산균, 효모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배합사료 혼합 : 사료 5톤당 5~10g 혼합하여 사용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발효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 발효도움이는 흙살림의 특허미생물 기술을 바탕으로 선발된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했습니다.
- 발효도움이는 국내 환경에 알맞은 우수한 생균제 제품입니다.
-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정착을 유도하여 생태학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임모나, 아민 등과 같은 유해가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 각종 유기산의 생성으로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 기호성을 증가시켜 사료효율을 향상시킵니다.
-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발효사료 제조시 발효환경을 최적화 시킵니다.

사용방법
-원료 250kg 기준으로 발효도움이 1.0(2kg) 혼합
-TMF 제조시 원료 1톤당 5.0(10kg) 혼합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소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흙살림

· **안녕하세요! 흙살림 후원회원입니다**



흙살림 표방 농사꾼 되는길 단계적 유기농 정보 필요!

— 권영삼 (경북 영천)

2011년 대전에서 열렸던 대전 국제 농기자재 및 우수종자 전시회(TAMAS)에서 이태근 흙살림 회장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후원회원에 가입하게 됐다. 이때 '농부로부터'를 비롯해 흙살림 유기농업 총서 시리즈를 구입해 읽으면서 유기농업이 앞으로 해 나아가 할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현재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2000평 정도 짓고 있다. 아버지 때부터 지어오던 것인데 6년전 물려받았다. 아버지 때

부터 지금까지 제조제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박람회 때 이태근 회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친환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다. 제조제 대신 풀을 베고 친환경 자재로 어느 정도 해충을 막을 수 있다면 어디 한 번 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 그래서 힘어 들지만 계속 노력중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농부들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좋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것 아니

냐는 생각도 있다. 농부들 입장에서 약을 안치게 되면 건강에도 좋고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다고 본다. 흙살림이 나같이 마음으로 항상 유기농을 생각하는 농부들에게 유기농업으로 자꾸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 문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흙살림이 표방하는 농사꾼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



축산 관련 연구·토종 보급 흙살림이 앞장 서 주세요

— 김병수 (대구)

2012년도에 흙살림에서 유기농 자재 만들기 교육을 받았다. 유기농법과 토종 씨앗에 관심이 있던 터라 교육을 받은 후 후원회원에 가입했다. 2009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명예 퇴직하고서 농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였다. 유기농법을 비롯해 다양한 농법을 공

부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놓치지 않고 싶었다. 현재는 고향에서 텃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고 있다. 텃밭 400평엔 콩과 깨, 토종 채소들을 심고 있다. 나머지 100평에선 닭 150마리를 키워 우정란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텃밭은 유기농이다. 흙살

림에서 배운대로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퇴비를 자가 제조해서 쓰고 있다. 닭을 키우고 있는만큼 흙살림에서도 축산에 신경을 써 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토종에 관심이 많은데 토종 관련 정보와 함께 씨앗도 보급해 준다면 고맙겠다.

2014대안농정대토론회개최

11월 27일 서울서 '농의 새로운 미래' 주제로 열려

2014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오는 11월 27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다. 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는 "농의 새로운 미래 - 지역, 청춘 그리고 도농연대의 비상"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올해는 '농과 미래'를 중심으로 국민과 청년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 가 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 모색,

성장·분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농업의 미래>-한층 강력한 연합과 연대의 삶, <농촌의 역습>-풀뿌리 혁신사례에서 미래를 본다, <도시의 반란>-도시와 농촌의 하모니, <콜라보를 꿈꾼다>-모여라, 청년들의 행진, <청춘의 꿈>-우리가 농을 책임진다 등 5개 분과로 진행된다. 한편 분과별 토론회 전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한국 사회의 미래'라는 초청강연



과 '지역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 '우리 함께 귀농·귀촌을'이라는 주제로 특별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또 분과별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최진 조감독이 제작한 '청년농부의 코멘터리'라는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3471-4240.

■ 10월 흙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3~4일	과산	대회	45	제4회 아시아농업 대회
3일	과산	행사	80	한겨레 회원 도농교류
6일	과산	견학	37	홍콩 '한국 유기농 고찰단' 참가자
7일	과산	견학	15	전북 마이스터 대학
9일	과산	행사	6	흙과 도시 포럼
17일	과산	내방	20	농식품부 장관 내방 및 간담회
22일	과산	교육	7	현장실습교육(WPL)
23일	과산	견학	5	흙살림 매장 직원
24일	과산	교육	5	현장실습교육(WPL)
28일	나주	견학	20	과산군유기농업리더 교육
29~11.1일	대구	박람회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알림

흙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흙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23-01-059315.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 10월 회원 가입자 명단

백은숙(서울), 정은(서울), 최도경(영인)

■ 흙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명임, 곽태성,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경인, 김계향, 김광부, 김난영, 김남운, 김동숙,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생수, 김신유, 김연철, 김영권, 김영철, 김원섭, 김윤목, 김이진, 김인훈, 김정곤, 김정순,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형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도봉숙숙마을,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류희희, 문상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 박규건, 박기선, 박기환, 박동운,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안필, 박영숙, 박영범, 박의준, 박익순,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효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악, 서현주, 석종옥,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송기봉, 송동홍, 송중훈, 송재중, 송지은, 신동규, 신문수, 신인관, 신치영, 신홍기, 심민보,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오과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육종식,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기중,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채, 이병두, 이셋별, 이석천, 이성원, 이승훈, 이양희, 이완호, 이우정, 이은미, 이일웅, 이재숙, 이재웅, 이재형, 이재희, 이정필, 이정호,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향순,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숙,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민수, 정석조, 정인숙, 정창환, 정청천, 조광윤, 조기진, 조복남, 조정신, 조종기,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광욱, 최금열, 최서연, 최인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한인성,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상오, 허현욱, 홍승면, 홍정옥, 홍종윤, 황정연, 황정희.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품, 농업관련정책 등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 모두 읽는 소

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을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사)흙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농협계통 유기농업용 발효퇴비

흙살림 균배양체 그린

풍부한 발효미생물과 천연양분을 함유하고, 염류집적없이 비효가 빠릅니다. 흙을 살리는 친환경 종합토양관리제.

특등급 부숙퇴비(20kg)
+유기물 40% 이상



2015년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흙나라 유박골드

양분파괴가 적은 저온 성형. 냄새가 다릅니다. 토양살포 후, 발효가 빠르고 분해가 잘됩니다.

친환경 혼합유박 - 펠릿(20kg)
4.3-1.7-1
+유기물 70% 이상



발효부숙촉진용 미생물자재

흙살림 골드

발효 및 길항미생물이 다량 함유된 부숙 촉진제. 퇴비발효를 촉진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합니다.

퇴비발효시 퇴비 2톤당 1포
밀거름시 150편당 1포 살포 후 로터리

201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년 11월 30일까지
2.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이장, 농협 등
3. 공급시기 | 2014년 12월부터 공급
4. 제출서류 |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
5. 지원품목



- ①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흙나라 유박골드) - '(주)흙살림'으로 신청
- ② 부산물비료 | 특등급 퇴비(흙살림 균배양체그린) - '(주)흙살림'으로 신청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또는 흙살림 농자재팀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80-333-8179 / 043-216-8179